

국토교통부, 대전 유등교 복구 및 안전관리에 총력 대응

- 14일 오후 침하 사고 현장 피해상황 점검·피해복구에 만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14일 오후 대전 유등교 바닥판 침하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강조하였다.
 - 이번 현장점검은 국토부 및 대전시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유등교 사고 현장에 대하여 후속대책을 마련하고, 향후 추가적인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였다.
-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유등교는 1970년 준공된 길이 168m, 폭 30m의 양방향 8차로 교량으로, 「시설물안전법」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되어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다.
 - 10일 08시 유등교 특이사항에 대한 주민신고 이후, 현장에 출동한 대전광역시는 즉시 교량을 통제하였고, 현재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.
- 이번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교각 및 상부 슬래브가 침하된 것으로, 정밀안전진단업체 및 대전광역시에서 상세 원인을 조사 중이다.
-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“이례적인 극한호우로 인한 사고였지만, 대전광역시의 신속한 출입통제 조치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”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,
 - “전문가 정밀안전진단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원인과 보수·보강 방안을 명확히 밝히고, 최대한 신속히 보수·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4. 7. 14.

국토교통부 대변인